

프랑스 상업영화 제작 사례 연구¹

노철환

한국영화감독조합 책임연구원

목차

-
1. 서론
 2. 기획/투자
 - 1) 투자/제작승인제도
 - 2) 영화등록소, RCA
 - 3) 시나리오와 감독
 - 4) 캐스팅
 3. 영화제작 투자구조
 - 1) 제작/배급사
 - 2) TV 방송사
 - 3) 소피카와 2차판권
 - 4) 해외 판매
 4. 제작과 수익배분
 - 1) 제작비 구조
 - 2) 최저임금
 - 3) 촬영 및 흥행
 - 4) 수익분배
 5. 결론

¹ 본 연구는 201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필자의 「프랑스영화의 제작보고서 1-3」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재집필한 것이다.

요약문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체,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프랑스영화산업, 상업영화제작, 영화지원제도, 수익배분, 공공자금, 〈하트브레이커〉

1. 서론

2010년대 이후, 한국영화산업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다. 2013년 최초로 연간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하고, 2015년에는 2억 1,729만 명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한다.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위기를 말한다. 낮은 수익률, 부실한 2차 시장, 대형영화의 집중화현상, 투자/배급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스크린 독과점, 영화인의 열정페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모든 나라들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영화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프랑스 역시 특유의 영화제작/상영환경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영화를 둘러싼 환경을 이야기할 때, ‘좋은 예’로 꼽히는 나라다. 칸영화제와 칸필름마켓 등 명예와 돈을 아우르는 목직한 영화권력에서부터 지원제도와 규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영화산업, 국가와 영화산업 주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영화인 복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시작하는 영화예술관련 교육 등 일일이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²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프랑스 문화 함양’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구성되어 있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³

본고는 프랑스영화 제작에 대한 연구다. 프랑스영화 한편의 예를 중심으로 제작에서 상영까지 과정 전반을 짚어본다. 프랑스의 일반적인 영화 제작/상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타가 출연하고, 미국자본이 투자된 상업영

² 프랑스 영화정책 기관, 지원정책과 지원자금, 영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십시오. 노철환, 「프랑스 영화정책기관」, 『현대영화연구』, 제 4권, 2007, 47-65쪽;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자금사례를 바탕으로」, 『영화연구』 62호, 2014, 51-77쪽; 「영화관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본 프랑스의 영화예술 및 영화교육 프로그램」, 『영화연구』 67호, 2016, 29-58쪽.

³ 물론 프랑스의 영화지원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사례는 자국 없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가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한 파트릭 메세를 랭과 박지민의 지적도 그 중 하나다. Patrick Messelidin & Gimmyn Parc, “The Effect of Screen Quotas and Subsidy Regime on Cultural Industry: A Case Study on French and Korean Film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y*, fall 2014, p.70.

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010년에 개봉한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⁴가 그 대상이다. 연구는 가능한 영화 제작단계 순으로 진행한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체, 평균제작비,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한국영화산업에 시사한 바가 큰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2. 기획/투자

1) 투자/제작승인제도

프랑스에서는 매년 250-300편 정도의 영화가 제작된다. 국제공동제작도 활발한데, 제작비의 과반을 프랑스 자본이 차지하는 영화를 '프랑스주도영화(Film d'initiative française)'라고 부른다. 2015년에 제작인가를 받은 총 300편중에서 234편(78.0%)이 프랑스주도영화였다. 2015년 프랑스주도영화의 평균 순예산은 440만 유로였다. 1유로당 1,300원으로 계산할 때, 약 57.2억 원 정도다. 한편 2015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총 232편의 평균 순제작비는 14.5억원이다. 제작비 규모로 볼 때 두 나라의 영화예산은 약 4배정도 차이가 난다.⁵

프랑스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의 투자승인(agrément des investissements)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독특한 영화지원제도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승인제도는 안정적인 영화제작과 투명한 자금의 흐름을

⁴ 원제인 Arnacœur는 Ama + Cœur(심장)의 합성어다. 접두어 Ama는 '사기치다', '훔치다'를 뜻하는 동사 'arnaquer'에서 나왔다. 한국에서는 〈하트브레이커〉라는 제목으로 2012년 4월 19일에 개봉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하트브레이커〉 관련 인터뷰와 수치는 다음 기사를 참조한 것이다. "Plan de Financement: L'Arnacœur", *Ecran total*, No. 794, pp.14-15.

⁵ 본고에서 다루는 한불영화산업 관련 수치는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다음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6 ; CNC, *Bilan 2015*, mai 2016.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우선 기획서, 시나리오, 주조연배우 및 주요스태프 계약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제작자가 해당 영화의 제작을 위한 기술, 예술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 하나는 제작, 배급, 공동제작 및 기타 투자자들을 포함한 투자계획서(plan de financement)를 제출함으로써 영화제작 자금의 규모와 참여 주체들을 영화 주무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투자승인을 받지 않아도 영화 제작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공공지원제도와 관련한 모든 혜택들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극장 상영을 목표로 하는 거의 모든 영화는 CNC의 제작인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⁶

2) 영화등록소, RCA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한 이후, CNC는 제작사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후에 가승인을 받고, 이후 영화/방송등록소, RCA(Registres du Cinéma et de l'Audiovisuel)에 참여주체들과 작가들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영화법은 영화제작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RCA에 등재하도록 한다. 영상분야제작 환경의 투명성을 위한 이 제도로 인해 일정 금액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프랑스 영화 관련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하트브레이커>는 2009년 6월과 12월에 14건의 계약서를 RCA에 등록했다. 그 중 감독의 저작물 사용권리 양도로 인한 수익 배분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⁶ 대표적인 영화제작지원제도로는 입장료의 일부가 적립되는 자동지원을 필두로, 시나리오 지원, 신기술지원 등 각종 공모방식을 갖는 선택지원, 프랑스 내에서 사용한 제작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세금공제, 지자체지원금에 더해주는 추가지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⁷ 2009년 6월 9일 Heartbreaker라는 이름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2009년 12월 11일 프랑스 개봉명인 L'Amateur로 재등록되었다. 다음은 RCA 홈페이지다. <http://www.cnc-rca.fr> (검색일: 2016.06.15)

| 표 1 | 감독 관련 영화 수익 배분 (출처: RCA)

양수인	자격	양도인	자격
쿼드 필름	제작사	파스칼 쇼메유	감독
기간	2009년 6월 1일부터 33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극장 상영후 30년		
분야	수익배분		
프랑스 내 상업극장	수입의 0.225%		
프랑스 내 비상업극장	제작자수입 ⁸ 의 0.45%		
해외극장	제작자수입의 0.45%		
프랑스 내 비디오	소비자기(세금제외) 0.1%		
해외 비디오 및 TV	제작자수입의 0.45%		
VOD, PPV	소비자기(세금제외) 0.225% 또는 제작자수입의 0.45%		
멀티미디어	소비자기(세금제외) 0.225% 또는 제작자수입의 0.45%		
TV용 메이킹 필름	제작자수입의 0.45%		
기타 상영	소비자기(세금제외) 0.225% 또는 제작자수입의 0.45%		
미니멈 개런티	75000유로(세금제외). 150만명 도달시 2만유로 추가		
제작비용 상쇄 이후	제작자수입의 2.25%. 제작시 추가 투자를 한 경우 3.5%		

CNC의 승인위원회(Commission d'agrément)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투자적격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CNC 대표 이름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진다. 제작을 마친 영화들은 같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작승인(agrément de production)을 받는다. 제작승인은 영화의 공공상영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해 적립될 지원금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승인 시 약속한 바에 따라 영화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후 다음 작품 제작으로 이어질 자동지원금의 공정한 적립을 보장한다.

3) 시나리오와 감독

<하트브레이커>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알렉스(로망 뒤리스)는 커플

⁸ 제작자수입(제작자 할당의 순수입: RNPP, Recettes Nettes Part Producteur)은 제작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몫을 말한다. 보통은 영화의 극장상영수입, 비디오판권을 비롯한 부가 판매 등에서 얻은 총수입을 가리키나, 본 계약서에서처럼 특별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총수입에서 제작자의 몫으로 수익배분의 기준이 된다.

깨기 전문가다.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여자를 매혹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그에게는 철칙이 있다. 연애 때문에 여자가 불행한 경우에만 작업을 한다는 것. 어느 날 프랑스 최고의 재벌가 가십잡인 줄리엣(바네사 파라디)의 결혼을 막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알렉스는 빗 독촉에 떠밀려 행복한 결혼을 앞둔 줄리엣에게 작업을 시작한다.

제작자 중 한명인 로랑 제이툰(Laurent Zeitoun)은 못된 남자와 사귀며 불행했던 사촌여동생에게서 〈하트브레이커〉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팔에 옛 여자 친구 이름을 문신하고 있었던 그 녀석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라고 제게 말했죠.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배우를 한 명 고용해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게 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둘은 깨졌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커플을 깨는 직업이라는 생각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제이툰은 시나리오를 퀴아드 필름의 제작자 니콜라 뒤발-아다소프스키(Nicolas Duval-Adassovsky)와 얀 즈누(Yann Zenou)에게 보여줬고, 제작에 착수한다.

프랑스에서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트브레이커〉의 제작자인 뒤발-아다소프스키는 “우리는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쓰지 않는 각본으로 작업하는 감독이 드물거든요.” 누벨바그 이후 ‘감독 = 영화작가(Auteur du cinéma)’의 전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택시〉 시리즈의 제라르 크라브지크(Gerard Krawczyk)나 〈선탄하는 사람들(Les Bronzés)〉 시리즈의 파트리스 르콩트(Patrice Leconte)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명 감독들은 자신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는다. 신인감독들이 자작 시나리오로 데뷔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다.

결국 퀴아드 필름측은 많은 광고를 함께 찍었던 파스칼 소메유(Pascal Chaumeil)을 영입한다. 장편영화 연출은 처음이었지만, 소메유는 경험 많은 연출가였다. TV 드라마/영화 연출은 물론이고, 록 베송의 〈제 5원소〉와 〈잔다르크〉에서는 제 2연출팀을 이끌기도 했다. 소메유는 2008년 여름 시나리오를 받고, 제이툰과 함께 네달 동안 각색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하트브레이커〉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제작하기로 확정된다.

4) 캐스팅

프랑스 영화제작에서 주조연 배우는 보통 캐스팅 디렉터(Directeur du casting)가 담당한다. 제작자 얀 즈누는 “우리는 처음부터 주연으로 로망 뒤리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망을 캐스팅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이전트인 다비드 바티네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로랑과 파스칼은 로망 뒤리스와 함께 좀 더 알맞은 역할로 만들기 위해 석 달을 작업했습니다.”고 말한다. <프라이스리스(Hors de prix)>(2006)의 캐스팅 디렉터인 알랭 샤르비(Alain Charbi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영화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달 동안 10-20명 정도의 배우를 섭외”한다. 캐스팅 디렉터의 임금은 영화제작단체협약을 기반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조연출(1er Assistant réalisateur)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2016년에 발표된 협약을 기준으로 조연출은 39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급 1,408,22(220만원)를 받는다.⁹

반면, 여배우 캐스팅은 순조로웠다. 바네사는 2007년 <열쇠(La Clef)> 이후 한동안 영화 출연이 없는 상태였다. “바네사 파라디의 경우, 에이전트인 로랑 그레고리가 감독인 파스칼의 에이전트이기도 했죠. 그레고리는 파스칼에게 시나리오를 건네준 당사자였구요. 바네사는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감독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에이전트들은 일반적으로 배우 계약금의 10%를 챙긴다. 아래는 감독의 에이전트인 그레고리가 감독인 파스칼 소매유를 섭외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다.

| 표 2 | 감독 계약과 관련한 에이전트 수입 (출처: RCA)

수입배당 대상	에이전트
수입	작가에게 돌아가는 보수의 10%
미니멈 개런티	7500유로(세금제외), 150만명 도달시 2천유로 추가

⁹ 영화 스태프의 임금은 항상 상승하는지는 않는다. 영화산업의 경기,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설정한 임금은 때로 하락하기로 한다. 참고로 조감독의 39시간 주급은 2010년에 1,470유로였다. SNTPCT,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et de films publicitaires(영화/광고영화제작 단체협약)”, 2016; 단체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TV 제작기술/노동자조합(SNTPCT)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오. <http://www.sntpct.fr>

영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프랑스영화 제작비 중 주연배우들의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 내외다. 배우출연료 총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하다. 프랑스 주도영화의 2014년도 총 출연료는 1억 551만 유로였고, 이 중에서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6,538만 유로였다. 주연급이 총 출연료의 62% 정도를 차지했다.

표 3 | 프랑스주도영화 제작비 중 출연료 비중 (출처: CNC)¹⁰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연배우	6.8%	7.7%	6.8%	8.7%	7.1%
조연배우	1.6%	1.6%	1.4%	1.5%	1.6%
출연료전체	10.9%	12.1%	10.9%	13.2%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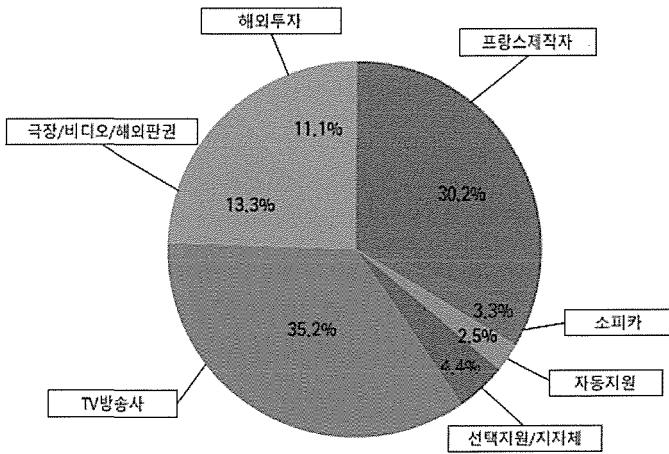
〈하트브레이커〉 제작비 871만 3,198유로 중에서 두 주연배우에게 돌아간 액수는 약 119만유로였다. 제작비의 약 13.7%가 주연배우 출연료에 사용된 셈이다. 장편영화를 처음 찍는 감독이 무명 시나리오작가가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작업한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화제작 투자구조

1) 제작/배급사

프랑스영화 제작은 제작사의 투자에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영화의 투자금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작사의 비중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음은 2015년 프랑스주도영화의 투자금 구성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¹⁰ 2016년부터는 CNC연감에서 프랑스주도영화 제작비의 세부구성 비율이 생략되어 있다. CNC, *Bilan 2014*, mai 2015, p.86.



| 그림 1 | 프랑스주도영화 투자구조 (단위: %, 출처: CNC)

실제로 제작사의 투자금은 제작자가 마련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트브레이커>의 제작을 위해 책임 제작자(Producteur délégué)가 마련한 금액은 250만유로에 달한다. 영화의 총 예산인 871만 유로의 2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로 제작자가 투자한 금액은 82만 유로뿐임을 알 수 있다. 250만유로의 투자금 안에는 제작자 자동지원 계좌에 축적된 10만유로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제작자 몫으로 배정된 수입료 34만유로, 제작사운영비 48만유로, 준비비 68만유로 등을 영화 예산에 제작자 관련비용으로 포함된 금액들을 영화제작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제작자의 투자금은 기존 영화의 흥행과 관련해 적립된 자동지원기금(soutient automatique)에서 대부분 나온다.

| 표 4 | 〈하트브레이커〉 제작자 관련 투자금 (출처: 에크랑 토탈)

책임 제작자 투자비 총액: 2,483,198유로	
구분	금액(유로)
개인투자비	816,791
자동지원금	100,000
제작자 수입료 중 재투자비	342,365
재투자되는 간접비(운영비)	479,311
재투자되는 준비비	684,731
공동 제작자 투자비 총액: 780,000유로	
유니버설픽처스 프랑스 투자비	500,000
차오코프	280,000

일반적으로 스타 캐스팅은 배급사와 제작비 확보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배우로 확정된 〈하트브레이커〉에 처음으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급사인 유니버설픽처스 프랑스였다. 배급사는 투자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미니멈 개런티 형식으로 큰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 1차 수입원인 극장시장의 판로를 확보한다. 또 프랑스에서 배급사는 국내 홍보, 비디오 판매 그리고 해외 판매 등 역할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프랑스 내 극장 및 비디오 판권을 구입한 유니버설은 공동제작자로도 참여한다. 유니버설픽처스 프랑스가 〈하트브레이커〉에 투자한 총액은 310만 유로였다. 극장 및 비디오 판권으로 260만 유로에 공동제작자 자격으로 5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했다. 총 제작비 871만 3,198유로 중 35.6%에 달하는 금액이다.

2) TV 방송사

프랑스영화제작에 있어 가장 큰 투자자는 단연 TV방송사다. 이들은 공동제작과 방영권 선 구매의 개념으로 35.5%를 투자했다. 프랑스 TV방송사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까닭에는 영화제작투자 의무 법제화가 자리하고 있다.¹¹ 프랑스에는 여섯 개의 공중파 방송사가 있다. 국영

¹¹ 2001년 7월 9일자명령 2001-609 (아날로그 공중파 서비스), 2001년 12월 28일자명령 2001-1332

방송사에 해당하는 프랑스2, 프랑스3, 아르테가 있고, 민영방송사 TF1, M6 그리고 유료공중파 채널 플뤼스가 있다.¹²

프랑스의 영화투자의무에 따르면 아르테를 제외한¹³, 일반 공중파 방송사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3.2%를 유럽영화에, 개중 2.5%는 프랑스적표현 영화(film d'expression originale française)에 투자해야 한다. 2015년에 제작 인가 된 300편 영화 중에서 TV방송사가 투자한 영화는 191편(63.7%)에 달했다. 이 중 168편이 프랑스주도영화였다. 이들이 투자한 총 금액은 1억 5,790만 유로였다. 한화로 2,052억원 가량이다. 영화당 평균 투자비는 120만유로 정도였고, 관련한 영화들의 평균제작비는 650만 유로였다.

표 5 | 유료 TV채널 영화투자 (출처: CNC)

구분	투자 편수	프랑스 주도 영화	선구매 (백만유로)	편당투자비 (백만유로)	투자영화 평균제작비 (백만유로)	투자금비중 (%)
2011	163	141	234.7	1.4	7.3	19.7
2012	155	134	231.7	1.5	7.4	20.3
2013	142	128	190.2	1.3	7.2	18.7
2014	136	122	178.2	1.3	6.1	21.6
2015	138	152	220.2	1.3	3.8	34.9
14-15년변화	+23.5%	+24.6%	+23.5%	0.0%	-38.1%	+13.3

한편 유료 공중파인 채널 플뤼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투자의무가 적용된다. 채널 플뤼스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12%를 유럽영화에, 9%를 프랑스적인 표현의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¹⁴ 실제로 채널 플뤼스는 프랑스영화의 제

(아날로그 암호화 서비스), 2001년 12월 28일자명령 2001-1333 (디지털 공중파 서비스), 2002년 2월 4일자명령 2002-140 (케이블 및 위성 서비스) 본고에서는 공중파 방송사만 다루기로 한다. 제작투자의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방송위원회에 해당하는 CSA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sa.fr>

¹² 이 외에도 현재 무료 공중파서비스에 해당하는 TNT에 속한 채널로 D8, 프랑스4, 프랑스5, HD1, NT1, TMC, W9 등이 있다.

¹³ 독일과 공동 투자, 운영되고 있는 아르테의 경우 프랑스법이 아닌 유럽법에 적용되어 제작투자의무에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¹⁴ 여기에 저예산 영화에 대한 세부 투자 규정이 추가된다. 프랑스적인 표현영화 투자금의 17%

1투자자다. 2015년 카날 플뤼스는 총 128편(중 프랑스주도영화 113편)의 방영권 선 구매에 1억 7,870만 유로를 투자했다. 프랑스영화 총 제작비의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시네플러스(Ciné+), OCS, TV5 Monde 등을 포함하면 유료TV채널의 영화제작 총 투자액은 2억 2,200만 유로에 달한다. 같은 해 한국에서 개봉한 232편의 총 순제작비(3,364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다.¹⁵

3) 소피카와 2차판권

배급사를 확보해 순항하고 있던 〈하트브레이커〉의 투자는 TV방송사 분야에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한다. 제작자 얀 즈누는 “TF1과 M6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거절했습니다. 둘 다 캐스팅을 문제로 삼았습니다.”고 말한다. 이들 방송사들은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로맨틱 코메디 배우로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투자를 거부했다. 보통 〈하트브레이커〉와 유사한 규모와 유형의 영화들은 공중파 방송사에서 150만 유로 내외를 투자 받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제작일정을 추진하던 제작사는 문제에 봉착한다. 두 방송사가 투자를 거절한 것은 2009년 3-4월께였다.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촬영에 차질이 생길 상황에 두 주연배우들이 나선다. “제작비 확보를 마치고, 영화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때 가장 먼저 저희를 도와준 이가 바네사와 로망이었습니다. 그들은 TV 판권 판매시 올리기로 했던 출연료 일부의 지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소피카를 찾아갔습니다. 3개의 소피카가 참여한 42만 유로짜리 투자풀을 형성했죠. TV 판권을 담보로 한 투자였습니다.” 제작자 얀 즈누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는 제작비가 4백만 유로 이하인 영화에 투자되어야 한다.

¹⁵ 총 순제작비 = 개봉영화편수 x 평균순제작비.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총제작비 계산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 표 6 | <히트브레이커>, 소피카 및 기타 투자금 내역(단위: 유로, 출처: 에크랑토탈)

소피카	
시네이마주	170,000
A+이마주	170,000
뱅크 포펠레르 이마주10	80,000
기타 투자금	
1차 TV판권 주연배우 배당금	400,000
카시블랑카(협찬)	40,000

소피카(Sofica)는 영화 및 방송 특화 금융투자회사다.¹⁶ 1985년 7월 11일자 법령에 의해 정의된 소피카는 투자자에게 영상산업에 투자한 금액의 40-48%에 해당하는 감세혜택을 준다. 이 같은 소피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몇몇 프랑스 메이저 영화사들 소피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워킹 베송의 유로파코프는 같은 이름의 소피카를 극장, 배급, 제작에 까지 손을 뻗친 UGC그룹에서 운영하는 UGC1이 대표적인 예다. 5-8년간 장기투자자는 단점과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큰 프랑스 특성상 영화 제작 시장에서 소피카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까닭인지 소피카는 제작시장에서 꾸준한 투자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매년 CNC는 소피카 신청을 받고 투자금 규모나 기존 자금 운용 방식을 평가해 인가해준다. 2015년 현재 소피카는 3,670만유로 이상 자금을 영화제작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4) 해외 판매

칸영화제는 예술영화들의 경연장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영화사들에게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다. 5월 중순에는 파리에 자리한 프랑스의 제작사와 배급사 대부분이 칸에서 작업한다. 칸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필름마켓(Marché du Film) 때문이다. 매년 4천편 이상이 상영되고, 100여개 국에서

¹⁶ 영화 및 방송 산업 출자회사: Société de fincancement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

찾아온 1만명 이상의 영화관계자들이 기획단계의 영화에서부터 제작 완료된 신작 또는 구작 영화를 12일 동안 사고 판다.¹⁷ <하트브레이커>의 제작자 얀 즈누는 “칸에서 저희는 해외 선판매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스위스와 벨기에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선구매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해외판매에 대한 위험부담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 공동제작자, 차오코프를 찾았습니다. 칸스에서 1, 2차 유료TV 방영 판권도 오랑주 시네마 세리(OSC)에 판매했습니다.”¹⁸

표 7 | <하트브레이커> 선판매 내역 (출처: 에크랑 토털)

구분	투자금(유로)
1, 2차 유료 TV 방영권(오랑주 시네마 세리)	1,800,000
베네룩스 선판매(빅토리 필름)	150,000
스위스 선판매(프레네틱 필름)	100,000

퀴아드 필름은 배우들의 투자와 소피카 그리고 해외선판매 및 해외공동제작자가 함께 함으로써 111만 유로 가량을 확보했다. 이는 처음 예상했던 공중파 TV 방송사 선판매 예상 금액에 가까운 액수였다. 결과적으로 유료 영화채널 OSC에 180만유로에 선판매 함으로써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투자자수 증가로 인해 수익을 배분의 대상도 늘어났으며 그만큼 제작자의 수익 비중은 줄어들었다.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않으면 제작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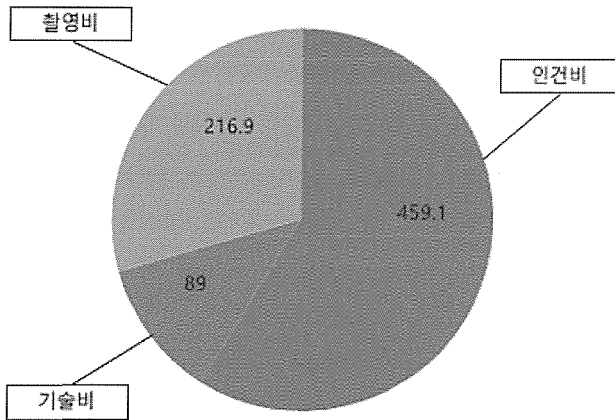
¹⁷ 칸 필름마켓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archedufilm.com>

¹⁸ 프랑스텔레콤의 자회사인 오랑주는 프랑스 최대의 이동통신/인터넷 회사이다. 오랑주는 콘텐츠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2008년경부터 영상산업분야에 뛰어들었다. 현재 제작사 스튜디오 37과 유료채널 오랑주 시네마 세리(OSC, Orange Cinéma Séries)를 운영하고 있다.

4. 제작과 수익배분

1) 제작비 구조

프랑스영화 제작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60.0%)다. 인건비 내역에는 배우의 출연료만이 아니라 스태프 인건비, 제작자, 감독을 포함한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그리고 에이전트비가 포함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제작비 대비 20% 내외인 스태프 인건비이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보장비(12-13%내외), 배우 출연료(10-12%내외), 저작권료(10% 내외), 제작자 수입료(5%내외) 순이다.



| 그림 2 | 2015년 프랑스 극영화 제작비 구조(단위: 백만유로, 출처: CNC)

〈하트브레이커〉의 순수제작비 871만유로는 당시 프랑스주도영화 182편의 평균순제작비인 548만유로의 1.6배 정도 규모다.¹⁹ 스타급 주연과 모나코의 고급 호텔이 배경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의 제작비인 것으로 고려된다.

¹⁹ CNC, *Bilan 2010*, mai 2011, p.69.

| 표 8 | 〈하트브레이커〉 제작비 구조(출처: 에크랑토탈)

구분	금액(단위: 유로)
저작권료	464,350
스태프 인건비	1,621,608
출연료	1,461,893
사회보장비	1,178,041
무대장치 및 의상	649,650
운송, 이동 및 진행비	669,915
기술	499,670
필름, 현상	424,545
보험 및 기타	454,484
모로코 촬영	125,000
계	7,549,156
간접비(운영비)	479,311
준비비	684,731
총 제작비	8,713,198

〈하트브레이커〉의 제작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였다. 162만 유로를 기록한 이 분야는 촬영, 조명, 연출, 무대 등 기술진과 운송, 전기, 장치 등 스태프의 인건비를 합친 것이다. 두번째 분야는 146만 유로를 지출한 배우들의 출연료다. 많은 영화들처럼 〈하트브레이커〉도 스타급 주연을 전진배치 시켰고, 이들이 가져간 출연료의 비중은 상당했다.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챙긴 출연료는 119만 유로로서 전체 출연료의 81.5%였다.

예산의 주요 분야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저작권료 46만유로 중 영화 아이 디어에 10.3만유로를 지출했다. ‘커플깨기’라는 영화의 소재와 시놉시스 창작자로 제작자 중 한명이 된 로랑 제이톤의 몫이다. 저작권(droit d’auteur)의 개념이 상당히 명확한 프랑스에서, 영화의 원안 제안자가 저작권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연출비 목록으로 7.5만유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제작비의 규모나 다른 항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이는 프랑스에서 영화감독이 제작자와 계약을 할 당시에 두가지 역할로 구분해 계약하기 때문이다. 즉 연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술자로서 감독에 해당하는 계약금이다.

반면 작가로서 감독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단계의 저작권료분야에서 한번 지급을 받고, 또 차후 발생하는 영화수익에 대해 지분을 약속 받는다. 인건비 중에서는 제작자 수입료가 34만유로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겨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금액은 다시 영화제작비로 재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비에 상응하는 지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2) 최저임금

프랑스영화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사회보장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분야 예산은 118만유로를 기록해 3번째 비용자리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를 포함한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연간 507시간(하루 8시간씩, 3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하면 그 외의 비활동 기간에 대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²⁰ 이는 영화제작 공동협약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영화인들의 생계유지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영화시장에는 영화기술진 및 배우들의 최저 임금을 명시한 공동협약의 존재는 중요하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2016년 주요 영화스텝의 주급(39시간 노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9 | 주요 스텝 최저 임금 (출처: SNTPCT)

직분	주급	직분	주급
촬영감독	2,661.68	감독	2,913.79
촬영 1조수	1,295.56	광고영화 감독	3,618.30
프로덕션 슈퍼바이저	2,625.92	조연출	1,408.22
라인 프로듀서	1,295.56	제2조연출	1,007.16
운전	1,023.92	스크립터	1,242.87
미술	1,027.20	의상 디자이너	2,591.11
미술감독	1,208.87	의상 감독	1,849.92
무대감독	1,430.57	편집 감독	1,671.27
음향감독	1,849.92	플리/믹싱	1,849.92

²⁰ 공연 및 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인력을 가리키는 용어는 ‘불규칙적인’, ‘간헐적인’의 의미를 갖는 intermittent이다. 이들의 실업수당 수혜기준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16년 4월 28일 연간 507시간 이상 활동으로 결정되었다.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엥페르미땅) 협상 결과”, 《예술인 복지뉴스》, Vol. 4, (검색일: 2016.06.15)

<http://news.kawf.kr/?subPage=02&searchCate=07&page=1&idx=62> (검색일: 2016.06.15)

물론, 위의 최저임금과 영화제작협약 내용이 프랑스 내 모든 영화 제작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수와 혜택은 협약의 주체가 된 제작자 노조 21와 영화스텝의 노조에 속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협약의 내용은 영화스텝 및 보조출연자 계약시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최저임금 외에도 협약에는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정의, 야간촬영과 주말촬영, 이동경비 지급, 식사와 간식의 기준금액 및 시간, 휴가 등 다양한 영화인들 처우와 복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트브레이커>의 경우를 볼 때, 280만유로에 달하는 인건비, 사회보장비 등은 바로 위의 협약 내용에 기초해 산정된 것이다.

3) 촬영 및 흥행

비슷한 규모의 영화 촬영이 11-12주 정도 걸리는 것에 반해, <하트브레이커>는 8주만에 촬영을 끝냈다.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보통 100만유로에 달하는 추가촬영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에필로그에 사용된 모로코 로케이션(12.5만유로)과 3주간 모나코 촬영(67만유로)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진행으로 보인다. 제작자 얀 즈누는 “영화의 전개상 호화로운 것들, 예를 들어 장소, 의상, 소품 등 모두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또 시네마스코프로 촬영을 했죠. 이를 위해 저희는 세계 최정상 촬영감독인 티에리 아르보가스트(Thierry Arbogast)²²를 고용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전국 380개 스크린 규모로 <하트브레이커>를 배급하며 UIP 프랑스가 세운 관객 목표는 150만명이었다. 목표치가 상당한 까닭은 해외주요 시장 대부분에 판매를 완료한 상태에서, 시사회들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개봉 당시 흥행에 힘을 실어 주는 요소가 하나 더

²¹ 프랑스 내 대표적인 제작자조합인 UPC(Union des Producteurs de Cinéma)은 이 협약에 귀속되어 있다. UPC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producteurscinema.fr>(검색일: 2016.06.15)

²²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촬영감독 중 한 명이다. 릭 베송의 작품(<니키타>, <레옹>, <제5원소>, <잔다르크>), <아더와 미니모이>, <더 레이디>, <루시> 등 대부분을 함께 했을뿐 아니라, 브라이언 드 팔마의<팜므 파탈>, 에밀 쿠스트리치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의 촬영을 맡았다.

있었다. 전국 극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입장료 할인행사인 ‘영화의 봄 (Printemps du cinéma)’이 영화 개봉과 겹친 것이다.²³ 배급사의 목표는 개봉 2주차에 초과 달성됐다.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 1위(117만명)으로 시작해, 최종관객 377만명을 기록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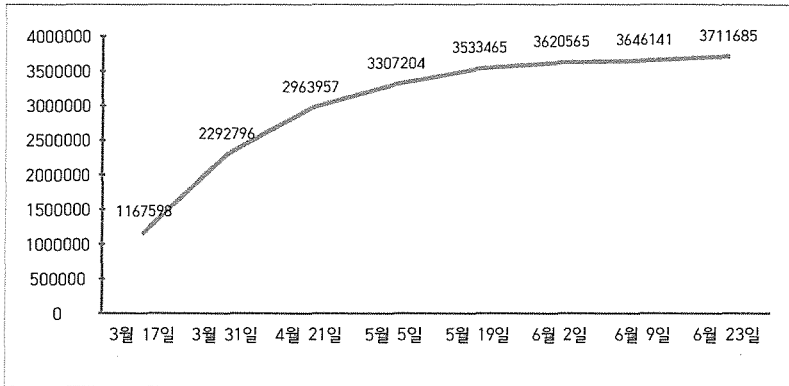


그림 3 | 〈하트브레이커〉 극장 흥행 추이 (출처: CBO-Boxoffice)

4) 수익분배

한 영화의 수익은 투자규모와 계약여부에 따라 분배된다. 〈하트브레이커〉의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는 배급사, 제작사, 공동제작사, 소피카, 주연배우 등이다.

배급사

배급사이자 공동제작사인 UIP 프랑스는 공동제작사(50만유로)와 배급사(260만유로)로서 총 310만유로를 투자했다. UIP 프랑스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²³ 프랑스 극장들은 전통적인 비수기에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016년 ‘영화의 봄’ 행사는 3월 20-21일, 사흘간 진행되었는데, 모든 회차의 입장료가 4유로로 고정되었다. 이는 파리를 기준으로 일반 관람료의 1/3수준이다.

²⁴ 〈하트브레이커〉의 주간 흥행수치는 <http://cbo-boxoffice.com>; 최종관객은 CNC, *Bilan 2010*, p.11을 참조했다.

- 미니멈개런티(260만유로) 회수시 때까지 프랑스 내 극장 및 비디오 제작자순수입(이하 'RNPP'로 표기)의 100%
- 해외판매 RNPP에서 66만유로 초과분, 프랑스 공중파 1차방영권의 90만유로 초과부터 공동제작투자분 회수시 때까지 RNPP의 40%
- 출자액 회수 이후 : 30%

관객당 약 2.72유로²⁵의 절반을 RNPP로 계산할 때, 관객수 362만명에 상응하는 RNPP는 492만유로다. 즉 비디오 판매수입과 상관없이 UIP는 미니멈개런티를 포함한 공동제작비 모두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작사

공동제작사인 차오코프가 투자한 금액은 28만유로다. 전체 제작비의 3.2%를 투자했을 뿐이지만, 차오코프는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졌다. 해외공동제작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판매나 특정국가의 배급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차오코프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투자분 회수시 때까지 해외판매 RNPP의 85%
- 투자분 회수부터 추가 6만유로까지 해외판매 RNPP의 40%
- 해외 판매 이외의 RNPP의 7%
- 투자분 회수와 추가 6만유로 회수 때까지 지원기금의 10%
- 그 외의 지원기금의 5%

소피카

<하트브레이커>에는 3개의 소피카가 투자에 참여했다. 이들의 투자총액은 42만유로였다. 소피카의 경우, 5-8년이라는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감면등 부가 혜택으로 인해 투자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수익금 회수는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해 다소 복잡하게 짜여 있다.

대략 살펴보면, UIP의 미니멈개런티 260만유로는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 그 다음, 프랑스 극장 및 비디오 RNPP의 12.14%, 프랑스 TV 판매 RNPP의 24.29%, 해외판매 및 기타권리(리메이크권 제외) RNPP의 6.07%.

²⁵ 2015년 기준 6.48유로의 평균입장료에서 특별세금, 부가세, 음악저작권료 등을 제외하고, 제작/배급사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입장료의 약 42.1%(2.72유로)다.

이 외에도 극장, 비디오, TV 및 기타 권리에 대해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소피카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

배우

주연배우인 뒤리스와 파라디는 TV 판매금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인 40만 유로를 제작비에 선투자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해진 저작권인접권 외에 각각의 투자금 20만 유로에 대한 수익배분을 가져간다. 두 배우의 조건이 조금 다른데, 이 중 로망 뒤리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차 TV 판권 이익분배 : 20만유로
- 극장, TV, 비디오, PPV, VOD 및 모든 형태의 RNPP : 2.5%
- 누적수익이 70만유로일 때까지 : 7%
- 제작비 회수 이후 1백만유로 수익 때까지 : 3.5%
- 이들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 2%

5. 결론

프랑스의 영화 제작 방식은 한국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동시에 여러 주체들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이윤을 분배하는 큰 틀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트브레이크〉의 기획, 예산설정, 지원제도, 투자, 예산집행, 수익 배분 등은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프랑스의 영화제작/상영 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영화 제작환경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다. 먼저 한국의 상황보다 철저한 사전제작 단계다. 감독, 배우 캐스팅, 시놉시스, 시나리오 단계부터 국제 공동제작 및 사전판매를 도모한다. 최근 한국영화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일반화해서 기획단계에서 낭비되는 인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제작 승인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투명한 투자구조와 제작비 지출, 수익 배분은 영화산업 전반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창작, 기술,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등 영화 전분야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공개되어 있고, 이

익 단체 간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균등한 자본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프랑스영화지원 정책의 기초는 영화를 통해 번 돈을 영화제작에 재투자한다는 데 있다.

또 하나는 TV방송사의 영화제작투자 의무다. 이들 방송사들의 투자금 상당부분이 프랑스주도영화에, 또 규모가 작은 영화에도 일정부분 집행되고 있음을 볼 때 영화정책 방향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복지 제도다.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는 영화인 복지제도들은 불명확한 수요/공급 법칙 적용과 고용/실업이 반복되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보완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바탕이 되고 있다. 한국영화 제작규모보다 4배가량의 영화가 매년 300편씩 만들어지고 있는 프랑스영화산업의 제작체제에 대한 후속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분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학술 논문

노철환, 「프랑스 영화정책기관」, 『현대영화연구』 제4권, 2007

_____,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기금사례를 바탕으로」, 『영화연구』 62호, 2014

_____, 「영화관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본 프랑스의 영화예술 및 영화교육 프로그램」, 『영화연구』 67호, 2016

Patrick Messerlin & Gimmyn Parc, "The Effect of Screen Quotas and Subsidy Regime on Cultural Industry: A Case Study on French and Korean Film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y*, fall 2014

영화산업 연감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6

CNC, *Bilan 2015*, mai 2016

CNC, *Bilan 2014*, mai 2015

CNC, *Bilan 2010*, mai 2011

기사 및 기타자료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엥페르미땅) 협상 결과", 《예술인 복지뉴스》, Vol. 4, 2016년 7월

"Plan de Financement: L'Arnacœur", *Ecran total*, No. 794

SNTPCT,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et de films publicitaires", 2016

인터넷

<http://www.cnc-rca.fr> (프랑스 영화등록소)

<http://www.sntpct.fr> (프랑스 영화/TV제작 기술/노동자조합)

<http://www.csa.fr> (프랑스 방송위원회)

<http://www.marchedufilm.com> (칸 필름마켓)

<http://www.producteurscinema.fr> (프랑스 영화제작자노조)

<http://cbo-boxoffice.com> (CBO 박스오피스)

Abstract

Case Study on a French Commercial Film Production

ROH, Chul-Hwan

Directors Guild of Korea

Principal Researcher

France owns a unique film production process with the big share of public funding. In its background there is the most developed film support scheme in the world. We consider the French film industry has the fair competition order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tudy follows the French film production process from the project planning to film screening. It looks into various aspects French cinema: production scale of French films, investment/production agreement, actors casting, decision of the film budget, major investors, staffs' wages and collective convention, screening, overseas sales and profit-sharing.

It aims to get across the French film industry, especially the film production sector. As a case study, we choose a romantic comedy, *Heartbreaker(L'Arnacœur)* made in 2010. This study presents a French film industry structure. It will give you some hints to reconsider the existing problems of Korean film industry, for example, screen monopoly, vertical integration of conglomerates, poor secondary market, low earnings rate... etc.

KeyWords

French film industry, Commercial film production, Film support scheme, Profit distribution, Public fund, *Heartbreak(L'Arnacœur)*
